



태극마크 향해 쏜다 광주서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양궁 국가대표 제2차 선발전과 컴파운드 국가대표 선발전이 22일 광주시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가운데 선수들이 시위를 당기고 있다.

이 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며, 지난해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64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 공사 8명이 출전했다. 여자부에서는 1차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이은경(순천시청), 올해 광주여대에 입학한 오예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 김민서(광주여대),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순천시청)이 출전했다.

남자부에서는 지난해 창단한 남구청 유니폼을 입고 2021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이승운이 태극마크 수성에 나섰다. 세계 유스양궁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진용(조선대)은 생애 첫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노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여자 프로배구 조기 종료...챔프전 안 열린다

우승팀 없고 포스트시즌 안치러...남자부는 정상적 시즌 진행
AI페퍼스 창단 첫째 기대 이상 선전...값진 3승, 7위로 마감

여자 프로배구 V리그가 코로나19 사태로 2021-2022시즌을 조기 종료했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여자부 7개 구단 단장들은 21일 비대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경기를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여자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구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진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6라운드 경기가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됐다. GS칼텍스는 흥국생명을 3-0으로 완파했다.

2005년 출범한 V리그가 정규리그를 마치지 못하고 끝난 건 2019-2020시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에는 남녀 모두 시즌이 조기 종료됐으나 이번에는 남자부의 경우 정상적으로 시즌이 진행된 것이다.

여자부는 코로나19 탓에 올 시즌 두 차례나 리그를 멈춰야 했다.

2월 11일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리그를 중단했다가 같은 달 21일 재개했다.

아슬아슬하던 여자부에 또 코로나19가 덮쳤다. 지난 6일 현대건설과 GS칼텍스 두 구단의 집단감

염으로 또 시즌을 중단했다. 연맹은 애초 지난 16일 리그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페퍼저축은행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재개일을 20일로 미뤘다.

2월 11~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리그를 중단해 올 시즌 여자부 누적 중단 일수는 26일이 됐다.

연맹과 프로 14개 구단이 함께 만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24~28일간 리그가 중단 되면 6라운드 정규리그로만 시즌을 종료하고 포스트시즌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연맹과 여자부 7개 구단은 지난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포스트시즌 강행을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리그가 재개됐지만,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I

BK기업은행과 페퍼저축은행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와 두 구단 모두 12인 엔트리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연맹과 여자부 7개 구단은 결국 중단 기간이 28일 초과 시 리그를 조기 종료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시즌 조기 종료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맹은 "회의를 통해 리그 조기 종료, 리그 축소 진행 등 여러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 결과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 선수들의 회복 및 훈련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시즌을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자부 조기 종료로 인해 이번 시즌에는 우승팀이 없다. 정규리그 최종순위는 중단 시점 직전 라운드인 5라운드까지의 순위를 반영해 1위 현대건설, 2위 한국도로공사, 3위 GS칼텍스, 4위 KGC 인삼공사, 5위 IBK기업은행, 6위 흥국생명, 7위 페퍼저축은행으로 마무리됐다. 현대건설은 2019-2020시즌에도 1위를 달리던 중 6라운드 초반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조기 종료되면서 챔프전을 치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시즌 첫 메이저 앞두고 고진영 3연속 우승 도전 JTBC 클래식 24일 개막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첫 메이저대회를 앞두고 3개 대회 연속 우승 등 기록 사냥에 나선다.

고진영은 24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츠바드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609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JTBC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 출전한다.

이달 들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태극에서 개최된 혼다 타이랜드 이후 한 주 휴식을 취하고 재개되는 LPGA 투어 대회로,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이기도 하다.

고진영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출전한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이후 3주 만에 실전을 치른다.

특히 이번 대회는 31일 개막하는 올해 첫 메이저대회 세브린 챔피언십을 앞두고 샷 감각을 조절할 기회다.

고진영은 지난 시즌 LPGA 투어 선수 중 최다승인 5승을 올리며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 메이저대회에선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2019년 두 차례(ANA 인스피레이션-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메이저대회 우승이 없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기세를 이어간다면 고진영은 8주째 지키는 세계랭킹 1위 경쟁에서도 우위를 더욱 굳힐 수 있다.

고진영(9.99점)에 이어 세계랭킹 2위인 넬리 코다(미국·9.03점)는 최근 열전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

'KIA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올해 이름을 바꾼 이 대회에선 2010년 서희경(36·은퇴)이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2017년 이미림(32), 2018년 지은희(36), 지난해 박인비(34)까지 4차례 한국인 챔피언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이 대회 외아어 투 외아어 우승으로 LPGA 투어 통산 21승을 거둔 박인비는 대회 2연패와 1년 만의 승수 추가를 정조준한다. 이미림과 지은희도 올해 대회에 나선다. 이들 외에 김세영(29), 이정은(26), 김효주(27), 전인지(28), 루키 안나리(26), 최혜진(23) 등 다수의 한국 선수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희정(22)은 초청 선수로 출전해 LPGA 투어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동계체전 5관왕' 화순초 조다운 꿈나무상

한국 크로스컨트리 미래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5관왕에 오른 조다운(화순초·13·사진)이 꿈나무상을 수상했다.

조다운은 22일 서울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시상식에서 꿈나무상을 받았다. 조다운은 이번 체전 크로스컨트리 여자 13세 이하부에서 5관왕(클래식 3km, 프리 4km, 복합 6km 계주, 스프린트 0.7km)을 차지했다.

꿈나무상은 애초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시상에는 없었으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포츠 꿈나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다관왕 조다운을 비롯해 최연소 컬링선수 김솔(9·의정부 송산초)이 상을 받았다. 조다운은 "이번 대회 5관왕 달성도 굉장히 기쁘지만, 꿈나무상까지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더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보선 전남스키협회장은 "조다운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도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전남체육은 앞으로도 우수한 꿈나무 선수들을 발굴하고, 고향에서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계육성 강화를 비롯한 많은 지원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구 세계 최강' 쿠드롱 PBA 첫 23연승 신기록

프로당구 PBA 최강으로 꼽히는 프레데리크 쿠드롱(54·벨기에)이 '최다연승' 신기록을 세웠다.

쿠드롱은 21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센터에서 열린 'SK렌터카 PBA-LPBA 월드챔피언십' 조별리그에서 박광열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쿠드롱은 '크라온데테 챔피언십(4차)'을 시작으로 이번 월드챔피언십에서도 무패를 이어가며 23연승으로 PBA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웠다.

앞서 최다연승 기록은 LPBA에서 작성한 이미래(TS삼푸)의 22연승이었다.

쿠드롱은 다니엘 산체스, 딕 야스퍼스, 토브온 브롤달과 함께 3쿠션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자타공인 최강 실력자다.

현재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선수 중 유일하게 PBA에 입성한 쿠드롱은 PBA 최초 3연승 우승을 달성했다. 또한 PBA 최초 개인 통산 5회 우승 기록도 세웠다.

한편 '당구 인플루언서' 해커는 우승 후보인 강동웅을 세트 스코어 3-1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뜨거운 피
- 2관 뜨거운 피
- 3관 극장판 주술회전 0, 더 배트맨
- 4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5관 뜨거운 피
- 6관 극장판 주술회전 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9관 문물
- 7관 씨네캐플 스펜서, 메리 미, 언차티드
- 8관 씨네캐플 리더링 러브, 벨파스트, 에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